

구성과 특징

1부

고전 (苦戰)을 면하는 길

How to use '고전을 면하다'

- 「고전을 면하다」 교재를 활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STEP 1, 2, 3의 과정으로 안내합니다.
- 단계별 학습법을 익혀 2부에 수록된 고전시가 작품들을 빈틈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STEP 1

고전시가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반복해서 읽어 보자.

첫째, 교재에 제시된 고전시가 원문을 읽고 둘째, 현대어 풀이를 읽은 다음 셋째, 이 둘을 비교해 보자. 고전시가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비교함으로써 작품에 쓰인 단어와 표현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아래의 예를 통해 STEP 1의 학습법을 배워 보자.



STEP 2

OX 문제 풀이로 작품 이해를 확인하자.

고전시가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비교해 가며 공부한 다음에 기출 선지를 변형한 ⊕ ⊗ 문제를 통해 작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점검해 보자. 즉, STEP 2에서는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근거로 정답을 선택하는 사고의 과정을 훈련해 보는 거야.



STEP 3

다양한 장치를 통해 작품을 빈틈없이 공부하자!

2부에 실린 각 작품에는 고전시가 원문, 현대어 풀이, ⊕ ⊗ 문제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학습 장치를 수록해 두었어. '해석의 틀'은 고전시가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에 대해, '해석의 덫'은 작품 해석을 깊이 있게 해주는 표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그리고 각 작품의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 및 작품 전체에 대한 꼼꼼한 설명도 담았으니, STEP 3에서는 각종 장치를 통해 빈틈없이 작품에 대한 핵심 정리를 해 두자!

고전시가 '이것만은 알고 가자'

- 본격적인 고전시가 작품 공부에 앞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기본적인 고어, 자주 나오는 주제 · 단어 ·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1 고어 읽기의 기본

고전시가 작품을 비교적 현대어와 비슷하게 표기되어 출제될 때도 있고, 현대어와는 많이 다르게 표기되어 출제될 때도 있어. 아래에 제시된 2011학년도 수능과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상운곡, 사원 한 처용이 여러 번 사형에 출제된 경우에도 작품을 표기할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 따라서 우리는 고전시가 원문이 어떤 방식으로 표기되어 출제되어도 막힘없이 읽고 해석할 수 있게끔 공부해 놓는 것이 필요해. 그런 지점부터 고어를 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 줄게.

2020학년도 9월 모의	2011학년도 수능
풍진(11)에 못된 선녀 이 내 상에 엮어놓고 뽕사롱 풍우뭉 미운것 아 뒤죽박 천지간 남자 장이 달랠것 이 뽕관라 삼년이 못해 외제 지라(도복)을 문로 갖카	풍진(11)에 못된 선녀 이 내 상에 엮어놓고 뽕사롱 풍우뭉 미운것 아 뒤죽박 천지간 남자 장이 달랠것 이 뽕관라 삼년이 못해 외제 지라(도복)을 문로 갖카
- 장국진, 「상운곡」 -	- 장국진, 「상운곡」 -

2 고전시가 주제별 분류

사형에 출제되는 고전시가 작품의 주제는 대개 '자연 친화'의 '홍상성/무곡', '사형/한/애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 따라서 각 주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고 있으면 작품에 접근하기 수월하지. 물론 아래에 부마년에 대한 '호' 같은 유교 윤리를 주제로 한 작품, 기행 경향을 표현한 작품, 한살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작품 등도 있으나 위의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되 이를 확장해가며 공부하자.

1. 자연 친화

고전시가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제는 바로 '자연 친화'야. 자연 친화는 자연을 공경하던 유교인으로 아끼면서 자연에서 사는 삶을 긍정, 애정하는 태도를 말하지. 자연 친화를 주제로 한 작품에는 자연에 있는 화자가 그 속에서 사는 삶의 즐거움, 만족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과 속세에 있는 화자가 자연에 살기를 소망하면서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작품 등이 있어.

정자에 비법 번호와 독법에 고기 경어
노제화중에 뱀 마야두고
일변형하여를 아니 뽕니 어부살카

푸른 연못에 밭고 세고 비둘기까지 울고기름 해사서
없대의 인생이 가죽한 곳에 배를 대어 뽕니
자연의 일변 의미로 어는 뽕니 마시라는가?

3 고전시가 빈출 단어·표현

앞서 고전시가 작품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봤었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주제를 드러내는 데 자주 사용되는 단어와 표현들에 대해 공부해 보자. 어휘와 의미를 알아본 후에 예를 통해 실제 작품에서 해당 어휘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1. 자연, 자연 친화

· 자연의 다양한 표현=자연

어휘	의미	예
강호, 강산	강과 호수, 강과 산	강호에 뽕이 고개 죽림의 누엇다니 - 정철, 「관동별곡」 대만당 대를 이 잃은 월말에 차마 부되다 - 윤선도, 「만흥」
산천, 산수, 산천	산과 숲, 산과 물	산천에 못쳐 이세 지락을 무출 것가 - 정국진, 「상운곡」

4 고전시가에서 자주 쓰는 표현상의 특징

고전시가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설의 표현, 영한적 표현, 대규모 표현을 꼽을 수 있어. 이 표현법들은 문제에서 문지 암시에도 작품을 해석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 꼭 기억해 두자.

1. 설의적 표현

설의적 표현은 의문문의 형식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표현이야. 아래의 기출 문제를 예로 들어 보도록 해.

2016학년도 수능 4번

(가) 어와 동양제(東洋製) "호" 띠리 후어 아이 조고
헛트르 기온 질의 의(意)도 하도 할사

이 문장이 될 만한 문은 제자를 지망해 이(이)나라의 무언 어떻게 할 것
안가?

- 1부 How to use '고전을 면하다'와 고전시가 '이것만은 알고 가자'의 내용을 충분히 학습한 후 2부로 넘어가세요.

ㅇ

어부단가	P.58
어부사시사	P.75
어옹	P.189
어와 동량재물~	P.38
어이 못 오던다~	P.98
어저 내 일이야~	P.36
오우가	P.78
월선헌십육경가	P.160
유산가	P.197
유원십이곡	P.94
율리유곡	P.74
이 몸이 쓸 데 없어~	P.50
이런들 어떠하며~	P.44
이화에 월백하고~	P.34
이화우 흠뿌릴 제~	P.37
일동장유가	P.166
임 이별 하올 적에~	P.41
임이 오마 하거늘~	P.99
입암이십구곡	P.70

ㅈ

자경	P.72
장육당육가	P.73
장진주사	P.97
재 너머 성 권농 집에~	P.51
전가팔곡	P.84
전원사시가	P.82
정과정	P.175
정선 아리랑	P.194
제가야산독서당	P.183
제망매가	P.171
조흥시가	P.39
지당에 비 뿌리고~	P.51

ㅋ

천만리 머나먼 길에~	P.35
철령 노픈 봉을~	P.38
청산별곡	P.178
청초 우거진 골에~	P.36
초암이 적료훈디~	P.40
촉규화	P.184
추강에 밤이 드니~	P.47
추야우중	P.183
춘향이별가	P.195

ㅌ

탄궁가	P.144
-----	-------

ㅍ

풍상이 섞어 친 날에~	P.35
--------------	------

ㅎ

한거십팔곡	P.62
형산의 박옥 얻어~	P.53
흥망이 유수하니~	P.34

4주 완성 학습 PLAN

• 각 DAY별로 표시된 페이지의 작품들을 꼼꼼히 공부한 후 학습 날짜를 적고 에 체크해 보세요.

	페이지	학습 날짜		확인
DAY 01	P.12~P.31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02	P.34~P.38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03	P.39~P.44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04	P.45~P.49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05	P.50~P.54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06	P.57~P.63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07	복습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08	P.64~P.71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09	P.72~P.77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10	P.78~P.81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11	P.82~P.89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12	P.90~P.95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13	P.97~P.100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14	복습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15	P.104~P.110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16	P.111~P.118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17	P.119~P.125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18	P.126~P.131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19	P.132~P.137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20	P.138~P.143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21	복습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22	P.144~P.151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23	P.152~P.159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24	P.160~P.167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25	P.170~P.177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26	P.178~P.190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27	P.192~P.198	월	일	<input type="checkbox"/>
DAY 28	복습	월	일	<input type="checkbox"/>

1부

/

고전(苦戰)을 면하는 길

How to use '고전을 면하다'

고전시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전시가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야. 이를 위해 「고전을 면하다」에는 고전시가 작품들의 원문과 이에 대한 친절하고 자세한 현대어 풀이,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실어 놓았어.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공부하면 좋을지를 STEP 1, 2, 3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줄게.

STEP 1 고전시가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반복해서 읽어 보자.

첫째, 교재에 제시된 고전시가 원문을 읽고 둘째, 현대어 풀이를 읽은 다음 셋째, 이 둘을 비교해 보자. 고전시가 원문과 현대어 풀이를 비교함으로써 작품에 쓰인 단어와 표현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아래의 예를 통해 STEP 1의 학습법을 배워 보자.

<p>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이화에 월백하고~」 -</p>	<p>하얗게 핀 배꽃에 밝은 달이 비치고 은하수는 깊은 밤(밤 11시~새벽 1시)을 알리는 때에 배나무 한 가지에 어려 있는 봄날의 정서를 두견새가 알고 우는 것이겠나마는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싶어 잠 못 들어 하는구나.</p>
---	--

첫째 원문 읽기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 제
둘째 현대어 풀이 읽기	하얗게 핀 배꽃에	밝은 달이 비치고	은하수는	깊은 밤을 알리는 때에
셋째 비교하기	‘이화’는 ‘배꽃’을 말하는 거구나.	‘월백’은 ‘밝은 달’로 해석할 수 있고,	‘은한’은 ‘은하수’인 거고,	‘삼경’은 ‘깊은 밤’인 거네. ‘월백’, ‘은한’, ‘삼경’을 고려하면 시간적 배경은 밤인가봐.
원문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는
현대어 풀이	배나무 한 가지에 어려 있는 봄날의 정서를		두견새가	알고 우는 것이겠나마는
비교하기	‘춘심’은 ‘봄날의 정서’이니까 계절적으로는 봄을 배경으로 하는구나.		‘자규’는 ‘두견새’이고,	‘알라마는’은 ‘알고 우는 것이겠나마는’으로 해석 되는 거네.
원문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현대어 풀이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싶어	잠 못 들어	하는구나
비교하기	‘다정’은 정이 많은 것,		화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봄밤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고전시가에 나오는 표현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해. 고전시에는 비유한 단어,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책에 실린 고전시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3회 이상 읽다 보면 암기하려고 애쓰지 않더라도 자주 나오는 단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연습으로 탄탄하게

/ 다음의 _____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흥망이 우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 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 원천석, 「흥망이 우수하니~」 -

(나라의) 흥하고 망함이 운수에 달려 있으니, 만월대(고려 왕궁터)에도 가을 풀이
 우거져 있구나.
 오백 년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깃들어 있으니
 석양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겨워 하는구나.

첫째
원문 읽기

흥망이	우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	------	------	------

둘째
현대어 풀이
읽기

(나라의) 흥하고 망함이	운수에 달려 있으니,	만월대(고려 왕궁터)에도	가을 풀이 우거져 있구나
---------------	-------------	---------------	---------------

셋째
비교하기

'흥망'은 _____ 을 말하는 거고	'우수'는 _____ 에 달려 있다는 뜻이네. 운수에 달려 있다는 건 운명에 따라 결정된다는 뜻인가?	'추초'는 가을 풀을 말하네. '-로다'는 '_____' 라고 감탄형으로 해석하네.
----------------------	--	--

정답: 흥하고 망함, 운수, -구나

원문

오백 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	-----	-----	------

현대어 풀이

오백 년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깃들어 있으니
------	---------	------------	---------

비교하기

'왕업'은 '왕조의 _____'을 말하네. 위에서 '만월대'가 '고려 왕궁터'라고 했으니 여기서 왕조는 _____ 왕조를 말하는 것인가 봐.	'_____ '은 목동의 '피리 소리'로 해석할 수 있네.	'부치다'는 '깃들어 있다'로 해석할 수 있네.
--	----------------------------------	----------------------------

정답: 업적, 고려, 목적

원문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	--------	----------

현대어 풀이

석양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겨워 하는구나
-----	-----------	----------------------

비교하기

'객'은 '_____' 구나.	'-노라'도 '-로다'처럼 _____ 형으로 해석하네.
------------------	--------------------------------

정답: 나그네, 감탄

2부



고전(古典)으로 통하는 길



평시조

| 지문으로 출제된 평시조 |

●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 삼경(三更)인 제 ^{Q1, Q2}
 하얗게 핀 배꽃에 밝은 달이 비치고 은하수는 깊은 밤(밤11시~새벽1시)을 알리는 때에,

● 해석의 틀 '이화'는 배꽃이라는 뜻으로, '도화(복숭아꽃)', '두견화(진달래꽃)', '행화(살구꽃)' 등과 함께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시어이다.

● 해석의 틀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를 뜻하는데, '깊은 밤'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녀 시가에 자주 등장한다.

+ 일지춘심(一枝春心)을 ●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배나무 한 가지에 어려 있는 봄날의 정서를 두견새가 알고 우는 것이겠나마는,

+ 해석의 덩 '춘심'은 '봄철에 느끼는 심회'와 '남녀 간의 사랑'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지춘심'은 '배나무 한 가지'라는 자연물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해석의 틀 '두견새(절동새)'는 그 울음소리가 구슬퍼서 한과 서러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쓰인다.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Q3}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싶어 잠 못 들어 하는구나.

주제

봄밤에 느끼는 애상감

특징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부각함

큰거 (시각적 심상) '이화', '월백', '은한' 등, (청각적 심상) '자규'

해제

「이화에 월백하고~」는 봄밤에 느끼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백색의 이미지를 지닌 '이화'와 '월백'이라는 두 대상이 어우러지며 서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기에 두견새의 구슬픈 울음소리까지 더해지면서 화자의 애틋한 심정이 심화되고 있다.

빠른 정답 1.0 2.X 3.0 → 해설 p.202

Q1 밝은 달빛을 받는 '이화'에서 환기된 화자의 정서가 '자규'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 ×

Q2 '삼경'은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적 배경이다. ○ ×

Q3 종장에서 애상적 정서를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

●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Q1}
 (나라의) 흥하고 망함이 운수에 달려 있으니, 만월대(고려 왕궁터)에도 가을 풀이 우거져 있구나.

● 해석의 틀 '흥망'이란 '잘되어 일어남과 못되어 없어짐.'이라는 뜻이다. 주로 국가나 왕조가 생겨나 번영하다가, 시간이 지나 쇠락하게 되는 일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오백 년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깃들여 있으니,

석양(夕陽)에 지나가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Q2, Q3}
 석양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겨워 하는구나.

주제

망국(고려의 멸망)에 대한 한과 회고

특징

① 중의적인 시어와 영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큰거 (중의적 시어) '석양': 해가 저물 무렵 / 고려 왕조의 멸망, (영탄) '만월대도 추초로다', '눈물겨워 하노라'

② 청각적 심상을 통해 인생무상의 정서를 드러냄

큰거 '오백 년 왕업이 목적에 부쳤으니'

해제

「흥망이 유수하니~」는 고려의 충신이었던 작가가 옛 고려의 성터를 지나면서 고려 왕조 오백 년의 업적을 생각하고, 세월의 무상함에 대해 슬픔을 드러내는 회고적 성격을 지닌 작품이다. 특히 잡초가 우거진 성터에서 목동의 구슬픈 피리 소리를 들으며 지금은 망해버린 옛 왕조를 떠올리는 모습에서 애상적인 분위기가 부각되어 나타난다. 또한 화자는 종장에서 자신을 '객'이라고 표현하며 주관적 정서를 객관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빠른 정답 1.0 2.0 3.0 → 해설 p.202

Q1 화자는 독백의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

Q2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이다. ○ ×

Q3 '눈물겨워 하노라'에서 침울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

2부



고전(古典)으로 통하는 길



가사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Q1}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여,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이 어떠한가?

넋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나의 이 풍류가) 옛 사람들의 풍류(멋스럽고 풍치가 있게 노는 일)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 혼 이 하건마는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무를 것가

자연에 묻혀 산다고 지극한 즐거움을 모르겠는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몇 칸짜리 초가집을 맑은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서라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이곳에서 자연의 주인(자연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서사)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Q2}

엇그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띄어 있고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Q3}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구나.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아름다운 봄 풍경을 조물주가) 칼로 마음질한(잘라낸) 것인가? 붓으로 그려낸 것인가?

●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조물주의 신묘한 솜씨가 자연을 하나하나마다 야단스럽구나!(=감탄스럽구나!)

● **해석의 틀**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기 위해 조물주가 야단스럽게 자연을 만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한 고전 시가 작품들이 많다. 「상춘곡」 외에도 「면양정가」, 「성산별곡」, 「관동별곡」 등에서 유사한 표현이 나타나니 확인해 보자!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 흥취에 겨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Q4}

(지저귀는) 소리마다 마치 교태를 부리는 듯하구나!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소나

자연과 내가 한 몸이 되었으니 (나의) 흥겨움이 (새의) 흥겨움과 어찌) 다르겠는가?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사립문 주변을 걷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 보기도 하니,

소요음영(逍遙吟詠) 허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천천히 거닐며 시를 나직이 읊조리는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한가한 가운데 맛보는 참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구나.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여보게 이웃 사람들아, 자연(경치) 구경 가자구나.

답청(踏青)으란 오늘 호고 욱기(浴沂)란 내일 후새

답청(봄에 파랗게 난 풀을 밟으며 산책함)은 오늘 하고, 욱기(명예와 이익을 잊고 개울에서 목욕을 하며 유유자적함)는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採山)호고 나조히 조수(釣水)후새

아침에는 산나물을 캐고 저녁에는 낚시를 하세.

곳 괴여 닉은 술을 갈진(葛巾)으로 밧타 노코

이제 막 익은 술을 침베로 만든 두건(술을 걸러 마시는 도구)으로 걸러 놓고,

꽃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꽃나무 가지를 꺾어 (술잔의) 수를 세면서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온화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서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Q1 청자에게 묻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

Q2 '새봄'은 애상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로,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한다.

○ ×

Q3 '도화행화는~푸르도다'에서 자연물을 통해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Q4 '수풀에 우는 새는~교태로다'에서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Q5
 맑은 향기는 술잔에 가득하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준중(樽中)이 뷔였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술동이가 비였거든 나에게 알려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심부름하는) 아이에게 술집에서 술 받아오라 하여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논 술을 메고
 어른은 지팡이를 잡고, 아이는 술동이를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 허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나직이 읊조리며 천천히 걷다가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고운 모래가 비치는 맑은 물에 잔을 씻어서 (술을)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썬오노니 도화(桃花)로다 Q6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나려오는 것은 복숭아꽃이로다.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이고 Q7, Q8
 무릉도원(신선이 사는 곳, 낙원, 이상향)이 가까이에 있구나, (복숭아꽃이 떠나려온) 저 들이 바로 그곳(무릉도원)인가?

송간 세로(松間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들고
 소나무 사이 숲속 좁은 길로 진달래꽃을 손에 들고,

봉두(峰頭)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려 있니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밋는 듯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은 (마치) 수놓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다.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엇그제까지만 해도 (겨울이어서) 거뭇거뭇했던 들판에 봄빛이 넘치는구나.

<본사> 봄 풍경에서 오는 흥취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공명(공을 세워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나를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어떤 벗이 있사올꼬
 맑은 바람과 밝은 달(아름다운 자연) 이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누추한 시골에서 먹는 한 그릇 밥과 한 바가지 물(선비의 소박한 시골 생활)에 헛된 생각은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Q9
 아무튼 한평생 누리는 즐거움이 이만하면 어떠한가?(=만족스럽지 않은가?)

<결사> 안빈낙도하는 생활에 대한 만족감

주제

봄을 맞이한 자연 풍경의 아름다움과 이에 대한 예찬

특징

- ①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봄의 풍경을 드러냄
 [근거] (시각적 심상)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띄어 있고 / 녹양방초는 세우중에 프르도다', (공감각적 심상: 후각→시각) '청향은 잔에 지고' 등
- ② 설의와 영탄을 통해 봄 경치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드러냄
 [근거] (설의) '물아일체어나 흥이이 다를소나', (영탄)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셔라' 등

해제

「상춘곡」은 아름다운 봄의 풍경과 이로 인한 흥취를 노래하는 조선시대 최초의 가사 작품이다. 이러한 자연 친화적 태도는 「면양정가」와 「성산별곡」, 「관동별곡」 등에 영향을 주었다.

🔍 <보기>로 작품 보기

작가가 자신이 은거하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 주위를 노닐며 자연미를 체험하는 방식을 '유거'라고 하는데, 「상춘곡」은 이러한 유거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Q5 '화풍이~낙홍은 옷새 진다'에 자연 풍경에 동화된 화자의 흥취가 드러나 있다. ○ ×

Q6 시냇물을 바라보면서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

Q7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와 현실 세계 사이의 차이점이 부각되고 있다. ○ ×

Q8 '청류를~권 거이고'에서 시냇물에 떠나려오는 도화를 보며 이상향을 연상하는 모습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흥이 드러난다. ○ ×

Q9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

2부



고전(古典)으로 통하는 길



향가

간 봄 그리매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매
 모든 것사 우리 시름
 모든 것이 울며 시름하는데
 아롬 나토샤온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즈시 살쫘 디니져
 얼굴이 주름살을 지니려 하옵니다.
 눈 돌칠 수이에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맛보옵디 지소리
 만나 뵈도록 하리이다.
 낭(郎)이여 그릴 무수미 녀올 길 ^{Q1} ^{Q2}
 낭(죽지랑)이여 그리운 마음의 가는 길이
 다북 무솔히 잘 밤 이시리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 잘 밤이 있으리이까?

〈양주동 해독〉

간 봄 문 오리매
 지나간 봄은 다시 오지 못하니
 모돌 기스샤 우를 이 시름
 살아계시지 못하여 우는 이 시름
 무돔곳 불기시온
 전각을 밝히신 모습(죽지랑의 모습)이
 즈시 히 헤나삽 헐니져
 해가 갈수록 헐어갑니다.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
 누니 도랄 없시 더웃
 눈을 돌리지 않고서야
 맛보기 엇디 일오아리
 어찌 만나보기를 이루리.
 낭(郎)이여 그릴 무수미 쯤 녀올 길
 낭(죽지랑)이여 그리워하는 마음의 모습이 가는 길
 다보짓 굴형히 잘 밤 이샤리
 다북쑥 우거진 구렁에 잘 밤이 있으리이까?

〈김완진 해독〉

주제

죽지랑을 향한 사모(추모)의 정과 그리움

특징

① 비유와 설의를 통해 대상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냄

근거 (비유) '간 봄(죽지랑과 함께했던 과거의 시간)', (설의) '다북 무솔히 잘 밤 이시리', '다보
 짓 굴형히 잘 밤 이샤리'

② 세월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는 정서가 드러남

근거 '아롬 나토샤온 / 즈시 살쫘 디니져', '무돔곳 불기시온 / 즈시 히 헤나삽 헐니져'

해제

「모죽지랑가」는 8구체 향가로 순수 서정시의 성격을 지닌 작품에 해당한다. 죽지랑이 자신의 무리에 속한 낭도 특오에게 도움을 준 일이 있었는데, 이에 감동받은 특오가 훗날 죽지랑을 향한 그리움의 심정을 담아 창작하였다고 전해진다. 다만 정확한 창작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지어진 것이라는 주장과 죽지랑이 죽은 뒤에 지어진 것이라는 주장으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이에 따라 작품의 성격 역시 사모시(양주동 해독)와 추모시(김완진 해독)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Q1 대화를 인용하여 화자와 연관된 인물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 ×

Q2 '길'은 상대방과 재회하려는 화자의 소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 ×

**정답과
해설**

PART I 연시조

01 황희, 「사시가」

→ 문제 p.57

Q1 ○

〈제1수〉에서는 '봄'이라는 계절을 직접 명시하고 있으며, 〈제2수〉에서는 '세우중', '녹음' 등의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이 여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제3수〉에서는 '대초불 불근 골', '벼 벼 그루터기'라는 표현을 통해, 〈제4수〉에서는 '눈'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을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Q2 ○

〈제1수〉의 '그물 깊고', 〈제2수〉의 '산전을 훑매'는 행위들은 자연 속에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 구절이다. 이를 통해 자연을 노동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작가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Q3 ○

〈제3수〉의 '술 낙자 체장수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가을의 풍요로움을 즐기는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Q4 ×

〈제4수〉에서 '늪은이'는 낚시에 재미가 깊어 눈이 깊은 줄도 모르고 있다.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늪은이'는 겨울의 자연을 즐기는 존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화자와 마찬가지로 안빈낙도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02 이현보, 「어부단가」

→ 문제 p.58

Q1 ×

〈제1수〉의 초장에서는 구체적인 어부의 생활을 확인할 수 없다. 화자는 자연에 은거하여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며, 실제 어부가 아니다. 따라서 어부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Q2 ○

〈제1수〉의 '만경파(끝없이 넓은 바다 위)'는 어부의 생활 공간이다. 시름 없이 살고 있는 어부는 '만경파, 천심녹수, 만첩청산, 강호'에서 세속의 일을 잊고 있다. 따라서 속세를 뜻하는 '인세, 흥진, 장안, 북궐'과 '만경파'는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Q3 ○

〈제1수〉에서 화자는 속세를 다 잊고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으나, 〈제5수〉에서 (북궐을) 잊은 적이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속세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한 화자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Q4 ○

화자는 속세를 떠나 현재 '강호'에서 은거하고 있다. 화자는 속세와 자연 사이의 거리감을 '천심녹수', '만첩청산', '십장흥진' 등 '수(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Q5 ○

〈제2수〉의 종장에서는 '~후애라' 등 감정을 강하게 토로하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서 욕심없이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Q6 ○

〈제3수〉의 초장에서는 자연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푸른 연잎에 밥을 싸고 버들가지에 고기를 꿰는 구체적 모습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Q7 ○

〈제3수〉의 종장은 의문형 종결 어미 '~ㄹ가'를 활용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연의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아시겠는가?'라는 의문에는 화자처럼 자연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적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Q8 ○

화자가 〈제4수〉에서 자연을 대표하는 '한운(구름)'과 '백구'와 더불어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이들이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자연물임을 알 수 있다.

03 이신의, 「단가 육장」

→ 문제 p.60

Q1 ○

〈제3수〉의 제비는 유배지에 묶여 있는 화자와는 달리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이다. 자신과 대조되는 제비를 보며 '한숨 겨워'하는 화자를 통해 제비가 시름, 걱정을 불러일으키는(환기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Q2 ○

〈제5수〉의 초장에서 화자는 인간에게 진정한 벗은 밝은 달빚임을 의문형 종결 어미(설의)를 사용해 강조하고 있다.

01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민요)

→ 문제 p.192

Q1 ○

화자는 시집살이 상황을 '개집살이'라며 부정적으로 규정한 이후, 다양한 예를 나열하면서 시집살이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Q2 ×

사촌 형님은 시집살이가 어떠하냐고 묻는 사촌 동생에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라며 즉시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Q3 ○

화자는 사촌 동생과의 만남을 계기로 시집살이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

Q4 ○

시집살이의 고된 노동을 '오 리(2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고, '십 리(4km) 떨어진 곳에서 방아를 찧고, '아홉 솔'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있는 자리를 치워야 하는 일이라고 과장되게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다.

Q5 ×

'외나무다리~더 푸르랴'에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같이 어렵고 무서운 사람이 없음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탄'은 대상의 놀라움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므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감탄의 어조로 제시했다고 볼 수 없으며, 반성적 어조도 확인할 수 없다.

Q6 ○

화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동서, 시누, 시아주버니, 남편 등 시댁 식구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화자가 생각하는 그들의 특징을 '호랑새', '구중새'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Q7 ○

해당 구절에서는 시집살이의 고통을 귀머거리 삼 년, 봉사 삼 년, 병어리 삼 년이라고 칭하는 관습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며느리가 감당해야 했던 당시의 인습적 제약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Q8 ○

시집살이의 고통 때문에 자신의 용모가 변해버린 것을 '배꽃'과 '호박꽃'이라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말하고 있다.

02 작자 미상, 「정선 아리랑」(민요)

→ 문제 p.194

Q1 ○

화자는 '벧사공'에게 '배 좀 건너 주'라는 부탁을 하고 있다. 즉 '벧사공'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형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Q2 ○

화자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늙은 '고비'나 '고사리'와 달리 '임'은 늙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Q3 ○

지고 싶지 않아도 저녁이 되면 '지는 해'에 임이 떠나 가는 것을 빗대어, 임이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임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Q4 ○

'성님 성님 사촌 성님'에서 '성님'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Q5 ○

화자가 '사촌 성님'에게 '시집살이'가 어떤지를 묻고, '사촌 성님'이 대답하는 형식, 즉 묻고 답하는 형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시집살이 때문에 '삼단'같이 술이 많고 길었던 머리가 '비사리춤'과 같이 거칠어졌다는 대답을 통해 당시 여성의 고단한 삶을 확인할 수 있다.

Q6 ×

화자는 오늘 가더라도 내일 다시 오는 '해 달'과는 달리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가 임이 떠나간 것을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Q7 ○

화자는 자신이 임을 생각하는 만큼만 임이 자신을 생각한다면 '가 시밭길 천 리라도 신발 벗고' 올 것이라 말하며 기대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는 임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다.

부록

- 해석의 틀
- 해석의 덤
- 눈여겨볼 어휘

시어 및 구절	해석의 핵심	페이지
ㄱ		
강호(江湖) ≒ 임천 ≒ 산수 ≒ 풍월	자연	57, 58, 62, 81, 94, 104, 115, 119, 142, 164
개 ≒ 닭	임에 대한 원망을 전가한 대상	98
계성(鷄聲) ≒ 꾀꼬리 소리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대상	130, 156
꽃	꽃, 여성을 상징하는 소재	176
공명(功名)	유학자로서의 입신양명	62, 73, 105, 147
귀밑의 해묵은 서리	하얗게 센 머리(세월에 따른 노화)	74
귀뚜라미(실솔)	가을의 계절감, 외로움과 쓸쓸함의 정서	100, 133
금수(錦繡)	수 놓은 비단, 아름다운 경치의 비유	67, 105, 112
ㄴ		
낙시(대), 낙대, 낙디	자연 친화적 태도, 자연 속의 유유자적한 삶	47, 57, 66, 73, 74, 75, 109, 142, 147
남풍(南風)이 건듯 불어 녹음(綠陰)을 헤쳐 내니	바람(風)을 통해 나타내는 계절의 변화(봄 → 여름)	116
네 귀를 씻은 샘	허유의 고사, 속세의 거부	73
널구름, 구름	장애물, 간신을 빚댄 소재	122, 127, 130
녹음(綠陰)	여름의 계절감	57, 82, 126
ㄷ		
도롱이(녹사의) ≒ 죽장망혜 ≒ 수간모옥 ≒ 모(茅)재	소박한 삶의 모습	57, 88, 90, 104, 115, 147, 197
도화(桃花), 무릉(武陵)(무릉도원, 도원)	이상향,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	49, 68, 76, 88, 105, 115, 116, 197
동풍(東風)이 건듯 불어 적설(積雪)을 다 녹이니	바람(風)을 통해 나타내는 계절의 변화(겨울→봄)	74, 126
ㄹ		
매화(梅花)	임금에 대한 지조와 절개, 아치고절	43, 60, 92, 108, 126
무심(無心)	욕심이 없음	47, 58, 62, 116, 126, 142
물(시냇물)	감정 이입을 통한 슬픔의 정서 표현	35, 80
ㅁ		
백옥루(白玉樓) ≒ 백옥경(白玉京) ≒ 광한전(廣寒殿) ≒ 천상 ≒ 천상십이루(天上十二樓)	옥황상제 / 신선이 기거하는 공간, 임금의 궁궐의 비유	81, 106, 116, 122, 126, 129, 150
보리밥 ≒ 풋노물 ≒ 단사표음(單食瓢飮) ≒ 단표누항(單瓢陋巷)	소박한 삶	79, 88, 105, 143
북궐(北闕) ≒ 구중(九重) ≒ 구중 심처(九重深處)	왕(임금)이 있는 궁궐	38, 58, 86
북쪽	왕(임금)이 있는 한양	139
북풍(北風) ≒ 삭풍(朔風)	겨울 바람, 겨울의 계절감	46, 82, 117
빈 배 ≒ 빈 산(공산(空山))	외로움의 정서	51, 88, 108, 117, 130
빈천(貧賤) - 강산(江山)과 풍월(風月)	안빈낙도의 삶	39
빛 ≒ 저 ≒ 연지분(胭脂粉) ≒ 홍상(紅裳) ≒ 길쌈 ≒ 질삼뵤	여성 화자	126, 127, 150, 155, 173, 174, 176
ㅂ		
사계절 경치 묘사(산람, 녹음, 된서리, 빙설)	자연에서 즐기는 풍류 예찬	112, 115~117
사창(옥창) ≒ 규방(규중)	여인의 방(의 창), 여성 화자	98, 100, 132, 155
삼경(三更)	깊은 밤	34, 183
소허(巢許)(소부와 허유)	자연에의 은거	71, 79, 198
술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	60